

tim Tyrannus
International
Mission
두란노해외선교회

Spring 2021 Vol. 26

2021년도 TIM 화상전략포럼 I, II
On-line Mission Strategy Forum I, II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Matthew 28:19



표지사진

COVID-19 타지키스탄
긴급 지원 현장

CONTENTS

Intro

2

2021년도 TIM 화상전략포럼 :
코로나시대 선교환경변화와 6가지 선교대응방향

4

소망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
코로나시대 선교환경변화와 TIM대응방향
한총회 목사

Special Issue

2021년도 TIM 화상전략포럼 :
코로나시대 선교환경변화와 6가지 선교대응방향

화상전략포럼 1차

현지인 사역자 주도로 전환/이양 촉진

7

제자 훈련에 성공하면 이양도 성공한다
RC 발제 이석희 선교사

13

선교사를 대체할 현지인 리더 길러내기
논찬 강일영 선교사

16

현지인에게 사역 이양은 최상의 선교 전략이다!
현장 발제 뵈뵈 선교사

24

질의응답 및 토론 주요내용

화상전략포럼 2차

소그룹 제자훈련/가정중심사역

26

TIM의 교회개혁은 제자양육으로부터 시작된다
RC 발제 이철희 선교사

32

선교지의 '가정교회'는 '과정 교회'다
논찬 손충성 선교사

35

참된 목자를 세우는 목장 가꾸기
현장 발제 이영광 선교사

39

질의응답 및 토론 주요내용

Global Issue

중국 대륙 밖에서 진행 중인 '선교중국'

43

선교 중국 사역 진행 현황

44

선교중국으로의 부흥과
전 세계 선교의 완성을 꿈꾸며
허드슨 선교사

Home Issue

TP(Turning Point 단기선교사 훈련) 37기

47

마른 땅에 내린 늦은 비와 같았던 시간
손종열 지원자

50

TP훈련은 주머니 속의 당첨된 복권을 긁는 것!
김재연 지원자

〈통권 제 26호〉 발행일 2021년 4월 2일 발행인 이재훈 편집장 한총회 편집인 기획동원팀 디자인 인권엔파트너스
발행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ACTS29 비전빌리지 3층
전화 031-336-1042 웹사이트 www.tim.or.kr 이메일 tim@tim.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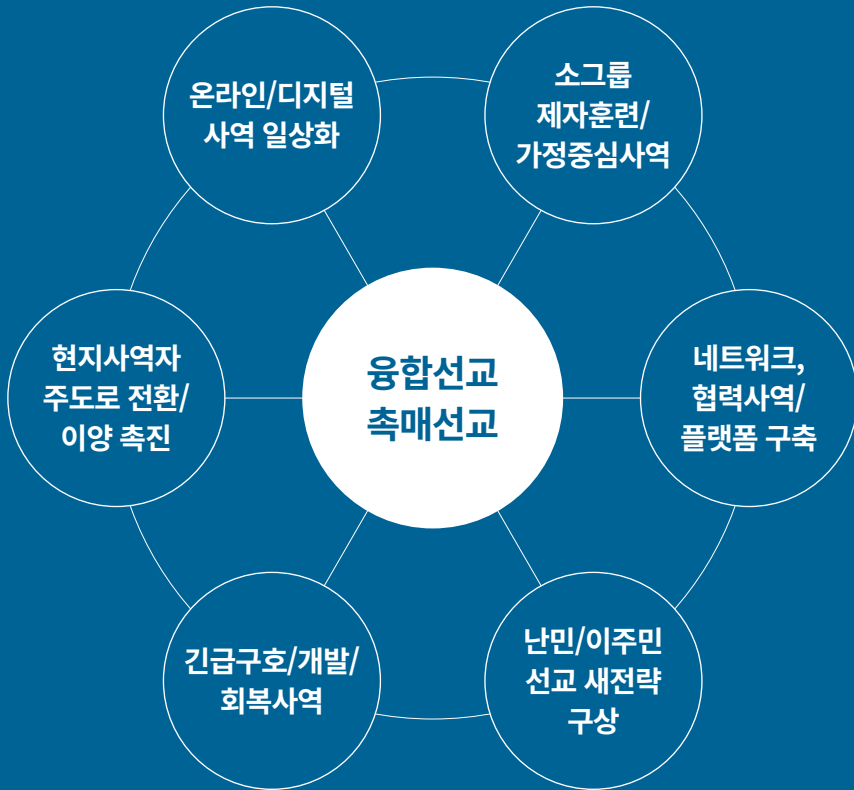
2021년도 TIM 화상전략포럼 :

코로나시대 선교환경변화와 6가지 선교대응방향



두란노해외선교회(TIM)는 변화된 선교환경을 준비하는 ‘6가지 선교대응방향’을 가지고 매달 한 가지 주제씩 온라인 포럼을 갖고 있다. 1차 1월 27일(수), 2차 2월 17일(수) 두 차례에 걸쳐 구글 MEET에서 100여명의 TIM 선교사들과 ‘화상전략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호에서는

‘현지사역자 주도로 전환/이양 촉진’, ‘소그룹 제자훈련과 가정중심사역’의 주제로 발제, 논찬, 질의응답 및 토론내용을 요약하여 실었다. TIM은 6차례의 포럼 결과를 종합하여 내년도 TIM 30주년을 맞아 “NEXT TIM의 선교전략” 방향을 세우는 데에 기초로 삼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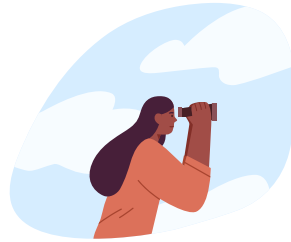
2021년도 TIM 화상전략포럼 진행 일정 및 주제

본부의 일정에 따라 1-2주 정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
|-----------|---------------------------|
| 1월 | 현지사역자 주도로 전환/이양 촉진 (1/27) |
| 2월 | 소그룹 제자훈련/가정중심사역 (2/17) |
| 3월 | 온라인/디지털 사역 일상화 (3/24) |
| 4월 | 네트워크, 협력사역/플랫폼 구축 (4/28) |
| 5월 | 긴급구호/개발/회복사역 (5/26) |
| 6월 | 난민/이주민 선교 새전략 구상 (6/23) |

His Words, Gospel of Hope, are not bound: changes in mission landscape and TIM's responses

소망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코로나시대 선교환경변화와 TIM대응방향





한충희 목사
/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본부장



두란노해외선교회(TIM)는 코로나 가운데 현지 선교사들과 수 십차례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가 촉발한 선교환경의 변화와 이것이 미칠 부정적/긍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한 새로운 선교정책 대응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총 95개 유닛에서의 적극적인 응답을 기초로 6가지 새로운 대응방향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6가지 주요 선교전략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가다듬기 위해 본부에서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한 주제로 모든 TIM 사역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화상전략포럼을 진행합니다. 이는 보다 깊은 난상토론(brainstorming)을 통해 코로나가 가져다준 선교환경의 영적이고 실제적인 의미와 전략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여 의기소침하고 약해진 선교역량을 회복하고 부흥시키는 기회로 삼기 위함입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읍시다’의 온누리교회의 표어를 생각하며, 51개국에 423명(21년 3월 기준)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두란노해외선교회는 “소망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딤후2:9)의 마음으로 영혼구원의 소명과 부르심에 나서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행4:12)’고 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롬1:16)’이라 했습니다. 그분은 역사(history)를 자신의 이야기(His Story)로 만들어 자신의 섭리와 목적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직접 진두지휘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요 20:21) 그 위대한 선교(mission)의 위임적 사명(commission)을 자신의 친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모든 곳에서 모든 민족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막16:15).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으며, 결코 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On-line mission strategy forum :

Changes in the mission landscape and
six ministry directions during the pandemic

2021년도 TIM 화상전략포럼 :

코로나시대 선교환경변화와 6가지 선교대응방향



SPECIAL ISSUE

화상전략포럼 1차 - 현지인 사역자 주도로 전환/이양 촉진

제자 훈련에 성공하면 이양도 성공한다 RC 발제 이석희 선교사
선교사를 대체할 현지인 리더 길러내기 논찬 강일영 선교사
현지인에게 사역 이양은 최상의 선교 전략이다! 현장 발제 뱌뵈 선교사
질의응답 및 토론 주요내용

화상전략포럼 2차 - 소그룹 제자훈련/가정중심사역

TIM의 교회개혁은 제자양육으로부터 시작된다 RC 발제 이철희 선교사
선교지의 '가정교회'는 '과정 교회'다 논찬 손충성 선교사
참된 목자를 세우는 목장 가꾸기 현장 발제 이영광 선교사
질의응답 및 토론 주요내용



The success of discipleship can lead to successful leadership transfer

제자 훈련에 성공하면 이양도 성공한다

RC 발제 이석희 선교사 / 인도네시아

교회가 선교의 결과로 탄생되었다면 교회는 주님의 지상사명(마28:19~20)을 위해 달려가야 한다. 1980년대부터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들은 부흥을 경험해왔다. 특히 제자 양육을 집중해나감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한 선교 국가로 발돋움해왔다.

온누리교회도 어느덧 35주년을 맞아 전 세계에 많은 선교의 결실을 맺어왔다. 필자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서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이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겨 선교적 역량을 감당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선교사들은 동역의 단계를 넘어 현지 교회에게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양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이양을 위해서는 사역초기부터 현지인 사역자를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세우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어떤 형태이든지 이양이 되어 선교사역을 계속 발전시켜야 하고 한국교회와 현지 교회 간에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협력과 이양이라는 주제로 5가지 성서적인 이양 유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5가지 성서적인 이양 유형

• 아브라함-이삭-야곱의 모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후 오랜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받은 선교사명을 상속받은 자가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상속자 이삭을 받기까지 오랜 인내가 요구되었다. 사역과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주는 선교이양이 되는 시점에 하나님은 그 둘을 다시 한 번 시험하셨다. 이는 협력과 이양이 단지 상속자에게 재산권 보호나 생계형의 이양이 아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기 적합한 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였다.

그 후 하나님은 선교 장자권을 첫째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넘겼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장자권은 혈통적인 장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선교 장자권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주어졌다. 야곱은 선교적 장자권을 받은 후 인간적인 실패와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그 후 선교 장자권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

이 이루어야 할 선교 사명으로서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나님은 선교장자권을 수행할 자들을 혹독히 훈련시키신 후 사용하셨다.

• 제사장의 협력과 이양 모델

하나님의 선교역사 속에 제사장의 직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왕과 선지자가 있기 전부터 제사장직이 존재했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선교사역을 감당하였다. 모세의 해석에 의하면 제사장 직분은 제사장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선교적인 사명을 맡은 모든 백성들은 세계를 향한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함을 선포하고 있다(벧전 2:9). 제사직은 오경 속에 광야에서 제도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제사직의 이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확고한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이 제도의 창설자로 직분, 사역, 책임 등을 제사장에게 맡기셨다. 즉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도구로서 선교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도화된 것이다. 이 ‘선교적 제도화형’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잘못된 선교로 생계유지형으로 전락될 수 있는데 엘리와 두 자녀 이야기가 그렇다. 엘리의 무관심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그 가문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다(삼상2:12-17).

•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양 모델

열왕기상 19장 1-17절에 엘리야는 죽음에 대한 위기 의식에 둘러 쌓여 있었다. 이 때 하나님은 발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고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도록 하신다. 부잣집 청년은 엘리야의 겉옷을 받고 부모와 결별 후 엘리야의 시종으로 들어가서 수종(隨從)들었다(왕상 19:20). 이는 바른 후임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왕하 3:11에서 엘리사는 낮은 종의 모습으로 스승 엘리야를 순종하고 따르고 배웠음을 볼 수 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한 이양자와 계승자의 관계로 아주 깊게 형성되어 10년간 협력사역을 했다. 엘리사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섬김의 자세로 배웠다(왕상 19:21). 이는 선임자와 후임자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성서속의 이양 유형 Model



아브라함-이삭-야곱
Abraham - Issac - Jacob



제사장들
Priests



엘리야-엘리사
Elijah - Elisha



모세-여호수아
Moses - Joshua



예수님-사도들
Jesus - Apostles

01_ 현지인사역자 주도로 전환/이양 촉진

•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양 모델

모세는 가나안 입성이 불가능하게 되자 곧 후임자를 선택하고 이양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후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한다(민 27:16-17). 이때 모세 가까이에서 보필하던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지명된다. 당시 갈렙도 믿음이 출중하고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름대로 강인한 개척(정복)정신과 군인정신으로 가득 찬 갈렙보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란 이름의 의미를 가진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정하였다. 이것은 그 시대가 강인하고 추진력 있는 지도자의 정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나안 정복 시대임에도 여호수아가 리더십인 모세를 시종으로(출33:11) 섬겼으며 성령에 감동된 자(민 27:18-23)였기 때문에 모세의 계승자로 선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사도적 새부대 모델:

예수님의 직무가 사도들에게 이양

예수님의 복음사역 중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제자양육을 통한 사도직의 위임이었다. 당시의 유명하고 유식한 종교적으로 열심 있는 종교지도자들이나 율법사, 바리새인 중에서 제자를 뽑으신 것이 아닌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을 뽑으셨다. 시골 어부 출신들, 죄인인 세리, 셀롯 당원을 제자로 부르셨다.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새 시대에 맞는 제자들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선교의 위임을 맡기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직무는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마 16:18), 제자를 세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마 28:19-20). 제자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의 가르침과 교훈을 실천하며 재생산을 이루어 내는 자다.

It is desired that rules and systems are installed to support sustainable ministry and asset management legitimately and objectively.

지금까지의 사역과 재산이 연속적으로 계승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객관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교의 장자권을 이양 받는 후임자는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기 보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리더십을 따르고 순종하며 리더십의 수종이 되어 부여받은 책임을 온 힘을 통해 완수해내는 자가 후계자의 자질을 보여준다. 다섯 가지 유형은 우리의 선교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형들이다. 후배 선교사에게 이양하든 혹은 현지 교단에게 이양하든 지금까지의 사역과 재산이 연속적으로 계승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객관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다음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는 선교부, 후원교회, 현지단체가 서로 간 원활한 유기체를 만들어 후임자 선정을 위한 원칙, 방법 등을 모색하여 적합한 후임자 선정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선임 선교사의 선교 목적, 방향, 사역이 확고한 경우에 후임자는 선임자의 이런 뜻을 받아 그 비전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더 나은 방향을 위해 서로 타협하고 협력할 수 있기 위해 현지 단체의 의견 제안 수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람퐁족 의료봉사

인도네시아 현지인 중심사역(재생산) 사례

2000년부터 시작된 인도네시아 사역은 무슬림 미전도 종족을 위해 20년간 기초를 닦았으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 이양은 멀어있는 단계이나 사역을 전개하고 제자양육을 해가면서 이양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다. TIM인도네시아 선교는 현지인들에게 영예로운 이양이 일어날 수도 있고,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영원히 동반자 관계로도 갈 수 있을 것이다.

• 람퐁종족사역(2000~2010년) 사례

학교사역

뿌궁라하르조 람퐁마을에는 N국 선교사에 의해 개척된 기독교 초,중,고등학교가 있었다. 개척한 선교사는 떠난 상황이었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가까스로 운영되고 있었다. 람퐁종족 선교를 위해 L 선교사는 사역을 이양받았고 지속적으로 학교사역을 발전시켜 람퐁종족 복음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선교사가 있을 당시는 사역이 일어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선교사가 떠난 후 학교

The sustainable ministry is determined by how solid the disciples are established.

선교사가 떠난 후 제자들을 얼마나 견고하게 세웠느냐가 사역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는 점점 기울어져 10년이 지난 지금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폐허 직전에 있다. 사역을 돌아볼 때, 학교를 맡은 현지인들이 선교사들로부터 물려받은 비전이 희박했다는 점과, 선교사가 현지단체들을 제자와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양된 점이 이 사역의 실패 원인으로 보인다.

병원 사역

L선교사는 람퐁종족 복음화를 위해 람퐁 제2도시에 위치한 메트로 병원(Mardi Waluyo Hospital, Metro)을 플랫폼으로 원장을 비롯한 재직 의사들과 실습 나온 의사 후보생들을 수 년간 제자훈련을 했다. 주기적으로 람퐁종족마을에 들어가 병원 건축지원과 병상수를 늘리며 의료사역도 병행했다. 람퐁을 떠나오고 난 후 10년이 지난 지금 람퐁 메트로는 제일 큰 병원이 되었고, 교회와 연합해 람퐁종족 복음화에 힘쓰는 람퐁종족 복음의 전진 기지

가 되었다. 당시 의료사역과 제자화를 동시에 병행했기에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병원이 되었다고 본다.

• 롬복 사삭족 사역

H국 선교사는 사삭 종족 마을에 들어가 10여년 그들의 문화를 익히며 현지 모슬림들과 삶을 나누고 신분의 안전을 위해 현지 교회와도 적극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하며 현지 제자를 길러냈다. 현재는 제자들을 통해 사삭 종족 사역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아직은 평가하기에 이르지만 H국 선교사가 떠난 후 제자들을 얼마나 견고하게 세웠느냐가 사역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롬복 사삭 종족 마을에서 현지인들과 교제하는 이석희 선교사



We cannot think separately of discipling and transferring the leadership. The success of discipleship can lead to that of leadership transfer.

제자 훈련과 이양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제자 훈련에 성공하는 것은 곧 이양에 성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타 지역의 현지인 사역자가 롬복지역 사색족 사역을 진행하는 경우, 현지인 사역자는 선교사들보다 언어, 문화, 종교 등에서 사역하기에 보다 월등한 장점이 있지만 끈기가 없어 2~3년 사역하다가 대부분 떠나게 된다. 롬복 GBI 담임 목사는 인터뷰를 통해 현지 사역자와 선교사의 사역적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현지 사역자는 선교사들보다 사역 조건에 있어 많은 우위에 있지만 선교 비전에 대한 근시안적 시야를 갖고 있고, 신선함을 던져 주지 못하며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포기하고 떠나곤 한다. 반면 선교사는 현지 언어와 문화, 종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나 돌파력, 열정, 현지인 사역자들이 주지 못하는 신선함을 선사한다. 그러므로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들이 서로 부족함을 채우며 '약속이 이루어 질 때까지 영원한 동반자 관계로 지속되는 것도 바람직한 선교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결론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우리들에게 당부한 사역(마28:19,20)이며, 제자 훈련은 사역 중에 가장 좁은 사역이면서 가장 확실하게 지상명령을 이룰 수 있는 사역이다. 그러므로 제자 훈련과 이양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제자 훈련에 성공하는 것은 곧 이양에 성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선교와 신학』 28, 2011
-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선교와 신학』 제1집. 1998.
-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선교와 신학』 제2집. 1998.
- 전호진 역. 『선교학』. 개혁주의신행협회, 1984.
- 한영제 편집. 『성경백과사전』. 1994.
- Harrison, Everett F. Ed. 신성종 역. 『신학사전』.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6.
- Hedlund, Roger E. Biblical Theology of Mission. 송용조 역. 『성경적 선교신학』. 서울: 서울성경학교출판부, 1990
- Lee, Witness. The Priesthood. Anaheim, California: Living Stream Ministry, 2002.
- 한국복음서원번역부. 서울: 한국복음서원, 2003.
- Bakers Dictionary of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1
- Watson, David. Discipleship. 권성수 역. 『제자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7



Raising up the leaders who are able to replace missionary

선교사를 대체할 현지인 리더 길러내기

논찬 강일영 선교사 / TIMA

이석희 선교사의 글을 읽으며 ‘성경적 이양’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됐다. 총 5가지 유형의 성경적 이양 사례를 통해 TIM이 가진 현지인 주도 사역 전환이나 이양이 성경적 기초 위에 있어야함을 상기시켜 준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도네시아 TIM이 이 모델들을 어떻게 인도네시아 사역에 적용하여 어떤 방향으로 사역주도와 이양을 해나갈 것인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 TIM 사역은 아직 이양단계는 되지 않았다고 정리되었다.

이양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인도네시아TIM의 현재 단계와 앞으로의 진행 방향, 현지 사역자 이양에 필요한 부분과 어떻게 채워가고 있는지 등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어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현지인에게 사역전환과 이양에 대한 실제 롤모델 제시가 없는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마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공유하기에는 인도네시아TIM 안에서 합의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문서로 표현하기 어려웠으리라 짐작해본다. 현지 사역자 주도의 사역전환이나 이양에 대한 이슈로 각 지역별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현재 TIM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TIM리더십(본부 및 RC)들과 몇 가지 방향성을 함께 나누고 싶다.

이양 단계	단계별 과업들
제1단계: 예비 단계 (the Preliminary Stage) Perceiving	과제1: 리더십 이양의 비전 품기 과제2: 스스로 변화의 주체자가 되기
제2단계: 이양 이전 단계 (the Pre-succession Stage) Preparing	과제3: 핵심 리더들과 비전 나누기 과제4: 조직의 현문화를 진단하기 과제5: 현지인 리더십을 위해 새 문화 창조하기 과제6: 새 리더를 계발하기
제3단계: 이양 단계 (the Succession Stage) Passing	과제7: 효과적 리더십 이양 원리 점검하기 (8대 원리 점검)
제4단계: 이양 이후 단계 (the Post-succession Stage) Phasing-out	과제8: 심리적 변화 다루기 과제9: 새 리더 지원하기 과제10: 자신을 전략적으로 재배치 하기

10개의 과업을 가진 4단계 이양 모델 ©인도차이나연구소 (신성주, 타문화선교리더십, 2009)

1. 현지인 사역자(선교사)에 대한 개념과 내용에 대한 정리가 필요

폴 히버트 교수는 선교사들이 자기 사역과 리더십을 극대화해가지만 그들이 지나간 곳에 현지인 리더들이 등장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는 현지인들이 잘 ‘추종하는 자(followers)’¹⁾로만 훈련되었기 때문인데,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려면 선교사들을 대체할 현지인 리더들(national leaders)을 길러내야 하고 리더십을 물려주어야 한다.

현지인 사역자는 TIM선교사를 잘 지원해주는 추종자의 개념인가? 아니면 현지인 리더로 성장할 사람인가? 에 대한 질문을 먼저 고민하지 않으면 자칫 선교사를 돕고 지원하는 사역자라는 개념으로 굳어져 현지인 사역자 주도의 사역과 이양을 가로막을 수 있다. 현지인 사역자라는 개념에 대한 깊은 고민과 기준을 정하고 현장선교사들과 소통해야 한다.

2. 단계적 이양 모델이 필요

TIM의 5P전략에 따르면 처음부터 이양을 고려한다고 되어있으나 실제적으로 이양에 대한 방향과 점검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분명한 것은 이양의 모델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그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위 표는 인도차이나 연구소가 제시한 이양 단계 모델로써 참고할 만하다고 본다.

3. 훈련과 교육이 필요

• 선교사에 대한 훈련과 교육

조용중 선교사(전 KWMA 사무총장)는 2015년 한국선교KMQ(Korea Missions Quarterly)에서 선교사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음이 전해지고 개척 단계가 지난 곳에서는 현지인들에게 좋은 문화로의 안내자 역할을 감당하는 변화의 중개자, 현지인들이 변화를 주도하도록 하는 촉매자, 변화를 돕고 지도하는 격려자,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통해 마음을 열고

상 의하는 멘토, 개척적 복음전파자, 현지인의 전인적 구원을 추구하는 기업가, 창조 질서를 보호하는 자연보호자 등의 역할을 제안했다.² 이는 선교사에 대한 혁신적인 개념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현지인 사역자 주도로 전환/이양 촉진’에 대한 방향과 내용이 정해진다면 필히 TIM 선교사의 재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 현지인 사역자에 대한 교육

현지인 사역자에 대한 훈련을 선교사에게만 위임하지 않고 TIM이 세운 단계적 방향에 맞게 훈련 계획과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여 건강한 현지인 사역자를 세워가야 할 것이다. 특히 현지인 사역자가 있는 지역이 아직도 자립하지 못해 건강한 모델의 교회를 보여줄 수 없다면 인근 지역(국가)의 교회를 경험하게 하여 현지인 사역자의 교회론과 목회철학이 세워지게 돕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현대 선교의 이슈인 ‘상황화’ 가운데 현지 교회가 ‘문화와 혼합된 복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화와 복음을 분리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자신학화’(self-theologizing)가 필요하다. 선교사에게 배운 교회론에 갇히지 않고 그들의 문화에 맞는 복음적 체계를 세울 현지 리더십이 세워질 때 ‘건강한 이양’이 가능할 것이다.³

• 훈련과 교육에 대한 온누리 선교본부 및 유관기관과의 합의

훈련과 교육에 대해 온누리교회(파송교회)와 비전 빌리지 훈련원(훈련기관)이 함께 방향성에 대한 합의와 훈련 주체와 목적등이 정리되어야 추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지인 선교사의 기준부터 훈련, 파송, 지원(재훈련/재교육 포함) 그리고 관리까지 연결되는 전체적인 사이클에 대한 논의와 방향성에 대한 공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When local leadership capable of building gospel system that fits the indigenous culture is established, not bound by the ecclesiology learned from missionaries, ‘a healthy handover’ is possible.

선교사에게 배운 교회론에 갇히지 않고 그들의 문화에 맞는 복음적 체계를 세울 현지 리더십이 세워질 때 ‘건강한 이양’이 가능할 것이다.

- 1) 폴 히버트 교수의 주장을 신성주 선교사(라트비아)가 인도차이나연구소 주최 ‘선교지 리더십과 선교이양’ 세미나 내용 중 인용한 것을 재인용
- 2) 2015 한국선교 KMQ 포럼 내용 중에서
- 3) 교회와 선교사를 위한 선교전략 총론. 엄주연 역. (서울:CLC, 2015) 12장 토착선교전략(p193~208)내용 중 요약



The best mission strategy is to pass the baton to local leaders

현지인에게 사역 이양은 최상의 선교 전략이다!

현장 발제 뵈뵈 선교사 / 몽골

2020년 코로나의 가장 긴박한 변화는 선교 현장에 불어 닥쳤다. 모든 국가들이 국경 봉쇄와 외국인 입국 제한, 자국민들의 집합 금지령 방역 지침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럽게 선교사들의 사역 공백이 생겼고, 대면 사역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갑작스러운 비대면 사역으로의 전환은 현지인 사역자들의 기술적 능력의 한계(컴퓨터 활용, 영상 작업 등)와 위기 시 대처하는 영적, 정서적 한계치를 여실히 드러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지나며 한 가지 중요한 선교 현장의 변화는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어떤 방법이든 사역의 이양이 급격하게 일어났다는 점이다. 더 이상 선교사가 현지에서 자유롭게 사역을 진행하기 어려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현지인 사역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이 주도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을 이양하는 것은 선교 현장의 가장 큰 필요일 뿐 더러 선교사 철수 후에도 사역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위해서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이에 현지인 사역자 주도의 사역 전환과 이양의 필요성, 전략에 대해 논하고, 몽골에서 경험했던 현지인 사역자의 여러 이양사례와 장단점을 비교하며 이양을 위한 현지인 사역자 역량 강화를 위해 고려할 것은 무엇인지 논해보고자 한다.

현지인 사역자 주도의 사역 전환과 이양의 필요

TIM선교는 과업의 완수에 대한 지침이 있다. 사역 기간을 개척->양육->동역->이양->떠남의 다섯 단계(5P)로 나누어 ‘처음부터 이양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그 것이다. 그러나 현장마다 상황과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양 방법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해 적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허나 TIM 선교사라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명자들로서 사역의 완수 시점을 ‘처음부터 이양’으로 잡아야 함은 분명하다. 선교의 본질적인 목표는 현지인들이 자원하여 자립, 자치, 자전하는 공동체로 자라



노방전도 전 기도하는 몽골 청년들과 선교사들

고, 그들의 민족이 복음화되는 일을 함께 돕고, 나아가 자력으로 그들의 국가를 복음화하는, ‘복음의 토착화’에 있기 때문이다.

과거 서구의 제국주의적 선교 방법에 반감을 갖던 현지인들은 개인의 주관적인 자유를 중시하는 포스트모던 시대가 도래하며 선교 중지 선언인 ‘선교 모라트리움’을 요청했다. 선교사가 가져온 문화와 현지인의 문화가 충돌하고 동시에 교회 내 선교사들의 장기적인 권력에 현지인들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힘을 이용한 선교는 현지인들에게 반감을 사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 요소가 된다. 선교사가 현지에 품고 가는 것은 우월함이 아닌 십자가여야 하며, 현지인들을 동역자로 귀히 여기며 섬길 때 진정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다.

또한 선교사들은 언어, 문화적으로 완벽히 이해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반면 잘 훈련된 현지인 사역자는 동일한 환경 속에서 영적

으로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조건에 놓여있기 때문에 현지인 사역자에게 사역을 이양하는 것은 타문화권 선교사들의 약점을 극복하는 최상의 전략이 될 것이다.

몽골 교회 이양 사례

선교지의 교회 유형은 선교화된 교회와 복음화된 교회로 나눌 수 있다. 선교화된 교회는 센터 혹은 프로젝트성 사역을 중심으로 선교사가 주도하는 것을 말하며, 복음화된 교회란 현지인 사역자가 중심이 되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교회를 말한다. 몽골에도 이 두 유형의 교회가 있으나 대부분의 교회는 복음화된 교회를 지향하는 선교화된 교회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국가적인 경제 위기로 NGO 센터 사역이 주를 이뤘던 과도기의 몽골 교회는 구호품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인해 당시 복음화율이 4%였지만, 그 후 급격한 경제 성장과 위기를 맞으며 기독교인 수가 1%로 급락했다. 이로 인해 몽골

It is because for the last 25 years missionaries aimed at evangelism and one-to-one discipleship taking transferring the leadership and gradual fade-out into account, not focusing on building large church buildings.

이는 선교사들이 대형 교회 건축에 열을 올리지 않았고 사역의 방향성을 처음부터 복음전도와 일대일 제자양육에 초점을 두고 단계적 철수를 고려한 이양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었다.

의 선교사는 거듭난 성도, 재생산하는 제자 양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리더십 훈련에 열정을 쏟기 시작했다.

몽골의 TIM선교사들의 사역에 중요하게 평가되는 몇 가지가 있다. 전방개척선교의 비전에 따라 복음의 불모지인 지방에서 활발히 교회 개척을 했다는 것과 비교적 단기간에 현지인 사역자에게 사역 이양을 했고,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들간 연합 사역이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25년간 선교사들이 대형 교회 건축에 열을 올리지 않았고 사역의 방향성을 처음부터 복음전도와 일대일 제자양육에 초점을 두고 단계적 철수를 고려한 이양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었다. 신실한 현지인 사역자를 발굴하고, 전문인으로 이뤄진 팀 사역으로 척박한 지방 사역도 원활히 이뤄가는 점은 몽골 내에서도 고무적인 평가를 받는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현지인 사역자에게 어떻게 사역이 단계적 이양이 되었는지 장단점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다르항지역에 분리 개척된 지교회 리더십들과 선교사들





신우일스 교회 현지 청년 리더십들과 선교사 부부

• 선교사가 현지인에게 바로 이양한 경우

다르항 지역의 주님의교회 이양 사례

2007년 이철희 선교사 가정이 개척한 다르항 지역의 주님의교회는 말씀, 기도, 전도에 힘쓰며 체계적인 양육 시스템으로 단기간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다. 주님의교회는 재생산하는 제자 양육에 초점을 두고 현지인들의 양육, 훈련에도 힘쓰며 셀그룹 리더가 반드시 12명을 전도해 제자 삼도록 했다. 그 후 선교사가 정부의 감시대상이 되고 안식년으로 귀국하며 이양이 진행되었다. 투표를 거쳐 대표로 선출된 현지인 사역자 보야형제가 다르항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고, 현지인 사역자 5명이 함께 분리 개척하면서 사역자들은 각자의 담당 영역과 분량의 사역을 하고 있다.

이 선교사가 사역을 보야 형제에게 이양하고 철수함으로 바로 자립, 자치, 자전이 일어났으나 현지 사역자들의 미성숙한 부분으로 한동안 혼란을 겪었다. 보야형제는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젊은 청년이었지만 교회 사역을 이끌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장년 성도들의 넓은 시각의 필요성과 더불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현재 TIM 선교사 두 유닛이 파송되어 함께 동역하고 있다. 선교사는 현지에 이양된 교회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영적 사역의 도움과 조언자의 역할을 한다.

울란바타르 지역의 주영광교회,

신우일스교회 사례

지방 사역을 하던 선교사들이 양육하던 제자들 중에는 수도로 유학을 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시급한 영적, 정서적 케어를 위해 수도에 거주하는 지방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와 교회 사역을 개척해 현지인 사역자들과 동역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선교사 주도의 1:1과 QT, 예배가 이루어졌으나 단 기간에 사역에 훈련된 현지인 사역자들로 교체되며 자연스럽게 이양되었다. 두 교회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사역자 중에서도 목회의 비전이 있던 첸데목사와 아므라형제에게 모든 리더십을 이양하게 됐다. 두 교회 모두 자치, 자립, 자전이 되고 있으며 선교사는 필요와 요청에 의한 멘토(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동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선,후임 선교사를 거쳐

현지인 사역자에게 이양한 경우

도르놋드 지역 생명문교회 이양 사례

온누리교회에 입양된 미전도종족중 하나인 몽골 브리야트족의 거주지인 도르놋드 지역으로 1997년 TIM 첫 선교사 가정이 파송됐다. 교육센터를 설립해 수강생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강선



브리아트족 사역

교사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해 교회가 개척됐다. 훗날 생명문교회의 현지인 사역자가 되는 수혜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대일양육을 진행했다.

그 후 강선교사 가정이 안식년으로 귀국하며 파송된 후임 이 선교사는 NGO 파견 직원으로 의료, 교육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 시기 도르노트 독립병원 의료진의 한국연수 및 도서관 건립과 같은 긴밀한 사업의 협업도 이루어졌다. 병원 측을 통해 생명문교회의 건물과 부지를 구입하며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수혜 형제를 양육하며 4개 브리아트족 마을에 전임 사역자를 파송했다. 그 후 후임으로 온 김선교사 가정은 본격적으로 수혜,통가 가정에 사역을 이양하기까지의 영적 양육과 리더십 훈련을 담당했다. 김 선교사는 수혜 형제가 안수받으며 모든 사역과 리더십을 완전히 이양한 후 멘토, 파트너로서 역할을 했다.

수혜목사는 세 유닛의 선교사를 거치며 다른 차원으로 양육받았으나 도르노트 지역의 사역 방향성은 브리아트족 선교라는 뚜렷한 한 가지 비전을 지속적으로 도전받았다. 생명문교회를 이양받은 ‘수혜’목사는 현재 자립운영할 교회를 건축했고, 자치와 자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 후 파송된 후임 선교사는 자립된 교회에는 관여하지 않고 브리아트족 선교의 다음 비전을 현지인 사역자와 협력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잡항 지역의 생명의 씨앗교회 사례

2006년 단기선교사 두 자매가 처음 파송되었던 이 지역은 훈련되지 않은 현지인 사역자가 일으킨 여러 문제로 인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 NGO직원 형태로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며 교회는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게르촌에 주일학교를 개척했다. 그러나 단기선교사 철수 후 건물을 팔며 교회가 흩어졌다. 그 후 양 선교사 가정이 파송되어 교육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주일학교를 새롭게 개척했다. 양선교사 가정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교회 이미지 개선에 큰 영향력을 주었다.

후임으로 파송된 디도,뵈뵈 선교사 가정은 센터와 주일학교 모임을 지속하던 중 지역교회의 위기와, 종교활동의 제재를 받으며 어쩔 수 없이 교회사역을 현지인 발징남자매에게 이양했다. 시기적, 방법적으로 급하게 이양이 진행되었지만 선교사 가정이 발징남자매와 현지인 사역자들을 세우기 위해 성경공부, 기도회 등으로 후방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했고, 당시 발징남자매의 높은 사회적인 위치로 인해 교회는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이후 파송된 단기 사역자들도 현지인 사역자들이 스스로 모임을 인도해가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디도, 뵈뵈 선교사 가정이 안식년을 맞은 해에 본부에 전략적 변화(ST 조직)에 따라 잡합 지역은 자연스레 출구 전략을 세우게 된다. 이미 3년간 이양단계에서 현지인 주도적인 사역과 자립, 자치, 자전이 이뤄지고 있었으므로 무리없이 떠남이 이행되었고, 현재는 원거리에서 발징남자매를 케어하고 지원하고 있다.

현지 사역자 주도의 사역 전환의 장단점

• 장점

비전 공유

몽골에는 온누리교회 입양 종족인 브리야트족 사역이 중요한 축으로 작용한다. 초기에는 선교사에 의한 사역이었지만 현재는 현지인 사역자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선교사들은 지속적인 비전공유와 사역의 이양을 통해 선교를 받는 몽골에서 선교하는 몽골로 전향할 것을 지속적으로 도전했다. 현재 수도에는 브리야트족만 모이는 교회가 개척됐고, 브리야트족 언어로 사복음서가 번역됐으며, 향후 내몽골과 러시아 브리야트족을 정탐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꿈을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 그리고 있다.

신속한 위기 대처 가능

선교사들은 동역과 이양의 단계를 거쳐 현지인 스스로 사역을 주도해 나가도록 사역의 방향을 잡아 준 결과, 현지인 사역자들은 열정적으로 교회를 이끌며 코로나19의 위기에도 문을 닫지 않고 비대면 사역을 하고 있다.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역자들은 선교사의 부재와 상관없이 적절한 대처로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는 처음부터 이양을 고려하는 바른 방향성을 갖고, 대형 교회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지인 주도적 사역

몽골인들은 방목형, 주도형의 민족성을 갖고 있어 조직 안에서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할 때 갑갑함을 느낀다. 이들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사역의 장을 마련해줄 때 오히려 주인 의식을 갖고 의욕적으로 사역에 임하게 된다.

현지 교회 간 연합

선교사의 개입없이 현지인 사역자들끼리 교회 사역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회들은 서로 연합하는 것에 적극적이다. 환경적으로 성도의 숫자가 적고 교회가 핍박받는 점도 경쟁이나 선교사에 대한 의존보다 같은 편으로 똘똘 뭉쳐 난관을 뚫게 한다.

• 단점

신학적, 목회적, 인격적 부분의 미성숙함

현지인 사역자들은 깊이 있는 신학교육을 받기에 교육 수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 해석의 오류에서 오는 문제들이 때로 발생한다. 이는 지속적인 말씀 훈련을 하며 신학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배경과 라마불교, 샤먼의 가치관 아래의 인생을 살던 사역자들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사고관 형성이 돼되어 성도간 관계문제나 도덕적 죄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이양의 가장 큰 부작용일 수 있으나 성품 훈련의 정도를 판단하기에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선교사는 조연자로 영적, 정서적 케어의 필요를 인지해야 한다.

현지인 사역자의 생계 문제

이양된 몽골 교회들은 자력으로 운영을 하나 현지인 사역자의 생활비까지 지원하지는 않는다. 사역자들은 대부분 충분한 사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비즈니스나 직업을 갖고 있다. 이 경우 사역 시간에 제약을 받거나 외부 후원에 의존하는 경우 세속화되는 경우가 있다. 자립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후원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When left to them,
reproduction must
occur. A slow transition
rather can make a
sluggish church.

그들에게 맡길 때 재생산은 반드시 일어난다.
오히려 더딘 이양은 나태한 교회를 만들
뿐이다.

이양 촉진을 위한 전략과 고려

교회 개척과 이양 방법에 관한 가장 좋은 전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부터 토착민들이 교회 지도자로 섬길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재정적 자립과 자전하도록 했다. 또한 현지의 문화적 상황에 따라 복음의 상황화에 유동적으로 적응하며 이에 적합한 신학을 발전시키도록 했다. 선교 역사상 가장 크게 부흥했던 한국 교회의 이양 사례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경 교육과 운영, 재정적 자립, 자전, 자치의 3자 원리를 강조하는 네비우스 전략을 통해 한국교회 토착화와 장로교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선교사들은 현장에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역의 주도권을 주고 상시 이양을 준비해야만 토착교회가 현지인 사역자 주도의 자치를 통해 복음의 배가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동시에 이전에 복음을 접해보지 않았던 현지인 사역자가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고 이양받기 위해서는 사역자의 역량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사역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지인 사역자의 영적, 인격적, 사역의 전문성의 3가지 영역에서 리더십 개발이 고루 이루어져야 한다. 현지인 사역자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둘째, 신학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역지는 신학 교육이 미비하여 현지인의 영적 수준과 지도력이 개발되지 못했다. 균형 있는 재생산과 제자 양육을 위한 신학 교육은 사역자의 자질과 역량을 향상시키며 신앙의 성숙과 인격을 훈련시킨다.

셋째, 현지인 사역자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감을 품어야 한다. 비전을 품는 것은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며 감당할 여러 시험과 유혹에도 사역자가 다시 일어설 하나님의 꿈과 기대가 있어야 끝까지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이양에 있어 고려해야할 점도 있다.

첫 번째는, 선교사와 현지인 사역자 간의 재정적인 부분과 사역의 주도권을 두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선교사와 현지인들 간의 부의 불균형으로 대등한 동역의 관계를 맺기 쉽지 않고 재산권 분쟁의 불씨를 항상 안고 있다. 더불어 사역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의 문제이다. 이미 복음이 들어간 지역에서 목회를 하려면 중북투자의 문제가 발생하며 현지인 사역자와의 갈등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목회자이기보다 복음의 개척자로서, 이양과 떠남의 단계를 고려해 사역의 주도권을 넘겨야 한다.

두 번째는, 현지인 사역자의 자질문제이다. 현지인들이 지적, 인격적 능력이 뛰어나갈 가능성은 높지 않고 좋은 리더를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

러나 선교사의 눈에 차지 않더라도 현지인의 능력을 무한대로 여기며 리더로 세워줄 때 날개를 달고 날 수 있다.

세 번째는, 현지인 사역자 중심 사역에 대한 한국 교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에 반드시 한국인 선교사가 상주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고 토착교회를 세우는 것이 한국 교회가 하는 선교의 목표인지, 선교사의 철수 후에 남아있을 복음의 수용자들을 진정으로 위한 구령의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 맞는지를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현지인 사역자와 팀을 이뤄 사역하는 것이다. 언어적, 문화적으로 선교사보다 뛰어난 현지인들과 함께 팀으로 사역할 수 있다면 사역의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수 있다. 팀 사역은 성경적인 원리이며 가장 효과적인 선교의 전략이다.

결론

현지인 사역자에게 이양을 한다는 것은 비전과 철학이 공유되고 주도적인 의사 결정권도 현지인 사역자에게 완벽히 이양되는 것을 뜻한다. 선교사는 언제든지 선교지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인식으로 부재 시에도 사명을 수행할 현지인 사역자를 영적, 인격적,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단계적 철수를 위한 이양 계획을 사역 초기부터 세워야 한다. 현지인 사역자 훈련을 위한 온누리교회와 본부의 도움이 구체적이고 현장 중심일수록 더욱 좋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양의 시기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단계적 철수를 위한 이양의 구체적인 방법을 긴급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성급한 이양은 현지인 사역자를 포함해 현지 교회에 많은 상처를 남긴다. 따라서 개척 초기부터 이양을 염두한 사역은 현지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능력 있고, 우리보다 더 탁월한 토착민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맡길 때 재생산은 반드시 일어난다. 오히려 더딘 이양은 나태한 교회를 만들 뿐이다. 영적, 재정적, 정서적으로 선교사를 의지하게 만드는 사역은 결코 건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나의 제자인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문제이다. 선교사의 모든 사역은 자신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넓은 의미로 현지인 사역자에게 사역의 주도권을 주며 이양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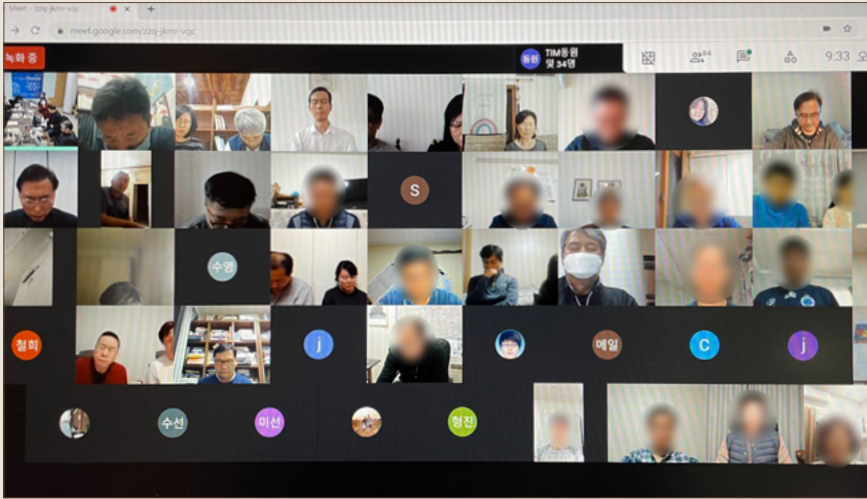
참고문헌

- 신성주 저, 『타문화 선교 리더십』, 생명의 양식, 2009.
- 신성주 논문, 『타문화 리더십 이양의 중요성과 장애 요인』, 고신선교.
- 허버트 케인 저, 신서균 역, 『세계 선교의 오늘과 내일』,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이재환 저, 『미션파서블』, 도서출판 두란노, 2003.
- 톰 A 스테픈 저, 김한성 역, 『타문화권 교회개척』, 토기장이, 2010.
- 성남용 저, 『선교현장 리포트』, 생명의 말씀사, 2006.
- 심재두 저, 『선교사 팀 사역과 갈등 해결』, 좋은 씨앗, 2016.



Q&A/Summary of discussions

질의응답 및 토론 주요내용



1. 이양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양은 선교의 교회 개척의 필요 불가결이자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이양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나, 지역의 특성과 현지 상황에 따라 이양의 방법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이양 사례를 수집해 이양 방법, 시기 등을 포함한 이양의 정의를 새롭게 내릴 필요가 있다.

여러 지역별 사례에 따라 다양한 이양의 개념이 제시되었다. 1) 현지 사역자에 맡기고 빠른 시일내에 이양하는 것, 2) 확실한 리더십을 세운 후에 이양하는 것, 3) 준교단과 같은 네트워크

를 구축한 후 이양하는 것, 4) 모교회를 두고 현지사역자가 새 교회를 개척해 분리하는 것이다. 선교사들의 사역적 성격과 현지 풍습, 특수성에 따라 적절한 이양의 단계, 방법론의 상황화(contextualization) 등을 고려하여 개념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2. 전통적 모델 : 선교사의 사역 및 교회를 현지인 사역자에게 이양

선교사들은 1개의 교회를 개척해 계속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닌, 빠른 이양 후 또 다른 곳을 개척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교

사는 현지인들을 잘 양육하여 이양을 받을 만한 리더십으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선교사는 파송을 받은 후 사역개시와 함께 현지인 사역자(이양후보)를 세우고 동역하며 이양을 준비해야 한다. 이양은 사역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자립하여 현지인 목사 및 리더 사역자의 사례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모교회중심 개척모델 : 성장한

모교회로부터 파송된 현지인 사역자에 의한 교회개척과 동시에 이양

성장한 모교회의 현지인 사역자들이 모교회를 떠나 다른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모델이다. 모교회(센터)의 공급을 필요로 하는 한국어학당, 신학교 등의 특수성을 가진 사역의 지역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으며 재생산을 지속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교회도 적절한 때에 이양되도록 해야 한다. 예시로 개척된 교회의 현지 사역자들 중 전체 리더십을 선출하는 방식이 있다.

4. 현지인 개척모델 : 이양없이 처음부터 현지인에 의한 교회 개척

선교사에 의해 교회가 개척되기 어려운 지역은 현지인 주도로 교회개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현지인 사역자의 자발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이 경우 선교사가 관여하지 않아 개척시기부터 사역의 이양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기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현재의 사역을 현지인 사역자 주도로 전환하여 현지 사역자를 사역의 전면에 내세우는 방향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교회 개척 및 이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사들과 지역의 현황 등을 파악하고 공유하여, 현지 상황에 맞는 이양의 시기와 조건을 고려한 이양의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성공적인 이양의 핵심 전제조건인 '현지인 제자화'를 촉진하기 위한 TIM의 세밀한 정책과 고유한 인프라 구축 및 현지인 동료와의 건강한 파트너십을 위한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기타 의견으로는, 이양 후 재훈련을 받을 수 있는 베이스별 훈련 센터의 필요성, 선임선교사에서 후임선교사로 이양되는 사역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발제 후 이어진 질의응답 및 토론에서 TIM 선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정리하였다.



At TIM, church-planting starts with discipleship

TIM의 교회개척은 제자양육으로부터 시작된다

RC 발제 이철희 선교사 / 몽골

2020년 TIM선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선교환경변화와 대응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소그룹 제자훈련과 가정중심사역’을 위해 추구해야 할 5가지 사역 방향이 제시되었다. 첫째는 코로나 시대 소그룹/가정 단위 새로운 소규모 사역,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훈련을 모델로 소수의 강도 높은 핵심 리더십의 훈련, 셋째는 소그룹 중심으로 온누리교회 핵심 사역(큐티, 일대일, 순) 재정비, 마지막으로 대규모 전도, 선교집회 성격의 아웃리치 재검토 및 소규모 현지화가 그것이다. 본 발제는 ‘소그룹 제자훈련’과 ‘가정중심사역’의 두 주제를 다룰 것이나, ‘가정중심사역’ 또한 소그룹 사역의 영역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그룹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소그룹과 제자훈련

‘소그룹 제자훈련’에서 ‘소그룹’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제자훈련’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방법

은 선택이고 목적은 필수이다. 그러므로 소그룹은 반드시 해야 하는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제자훈련’은 어느 시대,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이자 필수적인 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

왜 소그룹인가?

소그룹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자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소그룹을 지향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 성경적이유

교회의 본질과 소명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적 초대 교회의 모습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은 소그룹 가정교회였다. 한 가정을 복음화 시키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복음의 확장이 가정에서 가정으로, 다른 이웃과 친척까지 이어졌다.



제자훈련했던 몽골 현지 청년들과 이철희 선교사 부부

• 역사적 이유

기독교 역사적으로 소그룹을 통해 놀라운 부흥과 선교적 돌파를 이룬 사례가 많았다. 18세기 개신교 선교의 선두주자였던 모라비안 교회는 교회 안의 소그룹을 활성화했고,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는 옥스포드 대학내의 소그룹을 시작으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 시대적 이유

현대의 종교적 흐름은 전통적인 종교를 중시하며 외래 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은 점차 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발발은 다수가 모이는 것을 꺼리는 사회적 인식으로 비대면 사회가 일반화되고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도 강화되고 있다. 때문에 비교적 보안에 용이하고 현지인이 중심이 되는 소규모 모임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그룹의 정의

소그룹의 개념은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만 정확한 정의를 규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소그룹의 정의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본 발제자의 생각과 선교현장에서 적용한 내용들을 나누고자 한다.

• 소그룹의 구성

소그룹이 구성되기 위한 이상적인 인원수에 대해 본 발제자는 최소 3명에서 12명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소그룹 인원이 최소 3명이 되기 전까지는 불안정할 수 있다. 3명을 확보하기까진 힘든 과정이나 확보된 후엔 소그룹이 안정되고 인원수 증가에도 탄력을 받게 된다.

• 소그룹의 장소

초대교회가 성전과 가정에서 자유롭게 모였듯이 구매받지 않고 교회나 가정, 야외 등 어느 곳에서도 가능하다.

• 소그룹의 형태

소그룹의 목적에 따라 가정교회 형태의 소그룹 모임이나 예배 목적의 구역 모임, 교제 중심의 셀 모임 형태, 예배 교제가 혼합된 형태 등 다양한 소그룹의 형태가 존재한다.

• 소그룹의 종류

소그룹의 종류는 직업별, 연령별, 성별, 취미 등의 공감대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소그룹 & 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와 소그룹의 차이는 무엇인가? 선교지에 10명 미만의 교인수를 가진 교회들이 많지만 성경에 교회의 교인수에 대한 숫자적 정의가 없기 때문에 소그룹과 교회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 저희 ST의 경우 교회의 정의에 대해 몇 가지 규정을 내리고 규정에 적합한 경우 교회로 인정하기로 약속했다. 첫 째는 교인수는 최소 12명 이상이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릴 것, 둘째는 교회에 말씀과 찬양, 기도, 헌금, 세례, 성만찬이 있을 것으로 정하였다.

소그룹 형성

• 선교사 주도형

선교사가 주도적으로 소그룹을 개척할 경우 첫 단계는 전도를 통해 준비하신 영혼이 있다는 믿음으로 평화의 사람을 찾는 일이다.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생기면 즉시 지속적인 만남과 양육에 들어가야 한다. 기다리거나 지체하는 경우 사단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게 된다. 양육을 통해 최소 3인이 준비되면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보안지역에서는 모임을 이끌어갈 현지인 리더가 준비될 때까지 닫힌 모임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현지인 소그룹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는 부족해도 격려로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현지인 주도형

소그룹을 개척할 현지인이 준비되어 있다면 처음부터 현지인 주도로 소그룹을 개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선교사는 소그룹을 개척하는 일종의 사도적 역할을 하고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목자의 역할은 현지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일대일 양육 사역



• 교회 내의 소그룹

기존의 교회를 소그룹 형태의 교회로 재편하거나 기존 교회에 소그룹 모임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소그룹 모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한 경우보다 훨씬 힘들고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소그룹 모임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소그룹의 목적: 제자훈련

2018년 TIM선교사들은 기존의 CPM을 보완한 TIM만의 교회개척전략(CPM Plus)을 구체화시키고 ‘2018 CPM+ 뽀렘방 선언문’을 선포했다. CPM+의 핵심은 복음 전도와 제자양육, 그리고 교회개척이다. TIM선교사의 최종 목표는 전방개척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플랫폼 사역이나 전도에 멈추지 않고 반드시 제자양육으로 이어져야 하고, 제자양육은 교회개척으로 이어져야 한다. 소그룹도 제자훈련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

The final goal for TIM missionaries would be pioneering church on the mission front. Establishing a platform and evangelism should lead to discipling and planting churches.

TIM선교사의 최종 목표는 전방개척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플랫폼 사역이나 전도에 멈추지 않고 반드시 제자양육과 교회개척으로 이어져야 한다.

• 정의

제자훈련을 하고자 할 때, 먼저 ‘어떤 제자로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 ‘2018 CPM+ 뽀렘방 선언문’에 담긴 TIM선교사들이 내린 정의는 “충성된 강한 제자 즉,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자신의 삶과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며 영혼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재생산을 하는 선교적 제자”로, ‘선교적’의 의미는 “개척 초기부터 모든 과정에서 선교적인 목표와 그에 부합한 활동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훈련방법

제자훈련의 방법에 있어서 고정된 방법은 없다. C2C, Any3, T4T 등은 제시하는 방법 중 하나로, 어떤 교재로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현장 선교사에게 달려있다. 선교지의 문화와 종교, 사상 등에 맞게 현지화된 적합한 훈련 방법을 찾는 것이 선교사들의 과제이다.

• 제자훈련 요소

‘2018 CPM+ 뽀렘방 선언문’에는 TIM선교사들이 제자훈련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로 큐티훈련, 말씀훈련, 기도훈련, 전도훈련, 관계훈련, 성품훈련을 꼽았다. 그러나 이 중에서 특별히 힘을 기울여야 할 영역은 일대일과 큐티로, 2가지 훈련을 기초로 다른 훈련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 두란노가 발행하는 ‘일대일제자양육 성경공부’교재가 현지인 수준에 맞지 않다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쉽고 반복적인 학습)을 찾아 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BEE 사역

• 제자양육의 원리

1. 가르치려 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
2. 아는 자가 아니라, 할 줄 아는 자로 만들라
3. 격려하고 칭찬하라: 사감이 되지 마라
4. 잘못을 일일이 들추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5. 삶과 사역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심어 줘라

• 제자 양육 방법

1.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제시해 줘라.
2. 제자로 하여금 하게 하라
3. 제자로 하여금 배운 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게 하라
4. 처음부터 재생산 개념과 비전을 심어 줘라

Be patient again and again. Discipleship takes time.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 제자양육은 시간이 필요하다.

• 제자 양육 시 주의할 점

1. 절대로 월급을 주는 형태로 고용하지 마라
2.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돈 문제에 얽히지 마라
3.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직접 주지 말고 말씀에 기초한 원리를 가르쳐 줘라.
4. 말씀의 원리를 배우고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게 하라.
5.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 제자양육은 시간이 필요하다.

소그룹의 장점

소그룹은 언제 어디서든 모임을 할 수 있으며, 시간 변경을 해도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큰 비용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감당하기에도 좋다. 또한 다수가 아닌 소수의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깊이 나눌 수 있는 끈끈한 교제가 가능하여 친밀감 형성에 용이하다. 선교지에서 받는 정치적, 종교적인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가정중심사역

‘가정중심사역’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이며, 둘째는 가정 사역이다.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은 가정 단위의 소규모 사역을 말하며 가정 사역이란 가정을 살리는 사역을 의미한다. 코로나 시대에 더욱 비공개적이고 보안이 용이한 소규모 사역이 요구되고 있다. 전도와 제자양육이 지향하는 바가 교회개혁인 만큼 가정을 중심으로 한 사역의 정점은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다.

• 가정을 중심으로 한 사역(가정교회)

가정교회의 장점

가정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축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고 모임 장소의 제약도 없으므로 보안에 용이하며 사람을 세우는 사람 중심 사역에 더욱 용이하다. 또한 건물 유지비와 인건비로 인한 재정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재정 자립에도 용이하다. 소규모로 이뤄지는 가정교회는 현지인이 주도해 사역하기에 좋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제자화, 지도자화가 이뤄질 수 있으며 구성원간 강한 유대감과 소속감 안에서 깊은 교제와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또 가정에서 가정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교회의 재생산이 될 수 있다.

가정교회의 한계

선교지의 대부분의 가정들은 깨어진 가정이 많기 때문에 가정 안에 불화가 심하고 문제가 심각한 가정이 많다. 가장을 비롯해 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가정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고 오히려 가정 모임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안정적인 가정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교회 지도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말씀에 대한 준비와 목양에 대한 마음이 있는 리더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가정교회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규모 집회나 수련회 등에서 큰 은혜를 받거나 성령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족하다. 가정교회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기적으로 대규모 모임을 갖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때로는 가정교회가 전통교회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이단으로 오해를 받거나 소규모 교회에 적응을 어려워하기도 한다.

가정중심 사역의 사례

몽골의 E교회는 7~8명으로 구성된 팀이 매주 한 지역을 방문한다. 지역에 도착하면 팀은 다시 2~3명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가정을 방문해 전도한다. 전도 중 복음에 반응을 보이는 가정이 있으면 제자 양육을 시작한다. 제자 양육이 어느정도 되었다고 판단하면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에는 아이를 포함해 모든 가족이 참여하도록 한다. 현재까지 2가정에서 가정예배가 개척되어 진행 중에 있다.

가정 사역

코로나 시대에는 가정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 회복사역(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등)이 유용하다고 하겠다. 특히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으면서 가정을 위한 사역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교지의 관공서나 사업체, 직장 등과 협력해 진행하는 것은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런 사역들은 성격상 많은 수의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대중 사역에 속하지만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대중 사역을 무조건 부정할 것이 아닌 필요하고 중요한 사역인 만큼 적절히 활용할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



House churches on the mission field are 'churches in the making'

선교지의 '가정교회'는 '과정 교회'다

논찬 손충성 선교사 / 소아시아 T국

구약과 신약의 공통적인 선교명령의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란, 단순히 주일성수만 하는 교인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본받아 감당할 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의 각 자리마다 우

리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하여 드리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제자를 훈련시키는 이 과정이 실제적으로는 스스로가 참된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된다.

‘소그룹 제자훈련과 가정중심사역’의 주제에 대해 발제자는 제자훈련을 ‘배우는 것’과 ‘배운 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했

T국의 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연합 기도회에 참석해 함께 기도하고 있다



고, 실제적 사역이 적용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다. 제자 훈련을 위해서 소그룹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 현장이 된다.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실제적인 것을 배우는 현장 학교인 것이다.

필자는 중앙아시아와 소아시아에서 교회 개척에만 집중하여 25년째 사역하고 있다. 교회를 개척하여 현지인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명을 파송했고 그 중에는 교회 장소를 갖고 사역하는 지도자도 있고, 가정에서 모임을 하는 지도자도 있다. 훈련했던 사역자들과 현지인 지도자들이 스스로 모임을 세워갈 때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며 그에 대한 원인을 고민해보았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 명을 전도하여 믿음을 갖도록 하고 말씀으로 양육했던 경험의 차이였다.

여기서 필자는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훈련하기 위해서는 일대일과 소그룹을 섬기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결론 내리게 되었다. 한 영혼을 지속적으로 섬겨보지 않은 사람이 소그룹을 인도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일대일과 소그룹을 배우고 적용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와 함께 하는 현장 사역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선교지에서는 일대일과 소그룹을 배우는 과정은 있었지만 실제로 적용해보는 과정은 없이 바로 지도자로 세워지는 일로 사역에 적잖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소그룹 제자훈련을 위해서 다음 질문들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해보면 좋겠다.

1. 나는 얼마나 자주 전도하고 있는가?
2. 나는 현지인에게 제자 사역의 비전을 전달하고 있는가?
3. 나는 현지인에게 사역을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가?
4. 나는 현지인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가 독립적으로 일대일과 소그룹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준비해가고 있는가?
5. 나는 현지인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가 독립적으로 또한 주도적으로 일대일과 소그룹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가?
6. 나는 현지인 리더를 세우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가?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for a person who has not continued to serve a soul to lead a small group and build a church.

한 영혼을 지속적으로 섬겨보지 않은 사람이 소그룹을 인도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가정 중심사역에 대한 발표를 들으면서 한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을 나누고자 한다. 가정교회의 장단점으로 제시한 내용은 가정이라는 장소로 인한 장점과 단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모이는 장소가 가정이 아닌 작은 카페이거나 작은 오피스라면, 혹은 작은 식당이라면 어떠했을까? 소그룹 장소가 바뀌어도 가정모임(교회, 소그룹)에서 나타나는 장단점이 전과 크게 차이가 없다면 문제와 이유를 다시 되짚어 봐야한다. 가정중심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 어디에서든지 모임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선교지에서 가정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사역의 형태이고 추구해야 할 최종 목표인 것처럼 비춰진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발표자가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 몇몇 가정교회 사역 사례를 보면 작은 숫자로 시작된 모임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전통교회(건물교회)로 머물게 되었다는 것과 한 가족으로 시작했다가 어려운 상황이나 모임 구성원들이 참여하지 않음으로 결국에는 모임이 없어진 사례를 나누었다.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먼저는, 위 사례를 바탕으로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가정에서 모임을 계속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두번째는, 복음에 대해 닫힌 지역에서 매주 어떤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모임을 한

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세번째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나 그 이전에도 관심자들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가정 모임에 오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세가지 질문을 통해서 가정교회가 맞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꼭 가정교회여야 한다는 주장에 갇히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선교지에서 가정교회는 과정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장소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리더로 세워진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칫 가정만을 강조하다 보면 가정이라는 장소가 주는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출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장소가 아닌 사람에 집중하고 제자를 세워가는 일에 집중하면 모임과 만남의 다양한 장소의 선택들 중에 가정은 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열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된다고 생각한다.

I want to say that house churches are 'churches in the making' and that it does not matter where the church is or what form it takes, but the people matter who are established as leaders.

선교지에서 가정교회는 '과정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장소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리더로 세워진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Nurturing small groups for faithful shepherds

참된 목자를 세우는 목장 가꾸기

현장 발제 이영광 선교사 / 소아시아 T국

소그룹 훈련은 한국에서는 잘 알려진 훈련방법이다. 순모임이나 구역모임, 목장 모임 등의 이름으로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선교지에서는 여러 사정으로 열지못하거나 가정교회의 형태로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다. 소아시아 T국 E도시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필자의 사역을 소개하며 소그룹을 통한 실제 사례들을 나누고자 한다.

필자의 교회 상황

필자가 섬기는 교회의 경우 10년 전 교회 개척 후 소그룹으로 시작하여 가정교회로 발전했고, 가정교회가 회중예배로 바뀌었다가 최근 다시 회중예배와 소그룹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약 반 년간을 온라인으로 강의, 예배를 드렸고, 8월경 T국의 코로나 상황이 나아졌을 때 대면 예배를 다시 시행했다가 10월 말부터 급격히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교회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예배를 다시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온라인 전환 시 주 2회 화상 모임과 주중 1회 기도모임, 주 1-2회 강의를 함께 진행했다. 그러나 11월 교회 모임이 통제되며 성도들은 전혀 한 공간에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만나지 못하다 보니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참여에 태만해져 교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들었고 성도들의 믿음생활과 신앙훈련을 위해 소그룹 모임 훈련을 추가해 모임과 병행하게 되었다. 소그룹에서는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의 신앙생활을 격려하는 시간을 통해 리더로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다.

소그룹을 시작하게 된 이유

필자가 교인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개인 성경 묵상과 교우간 삶의 나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중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역 전환은 소그룹을



매주 목장(소그룹) 활동을 하는 목자들

통한 교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나 2018년 이후 동역자 없이 2년간 필자의 가정 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돌보고 훈련하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현직인들 가운데 훈련 되고 주님의 일에 헌신된 마음을 가진 리더를 발굴 해 성장시키고자 했다. 소그룹을 ‘목장’, 소그룹 리더는 ‘목자’, 그룹원을 ‘양’이라고 부르며 소그룹을 운영했는데, 소그룹의 ‘목자’로 세우기에 적합한 지체는 몇 가지 조건을 적용해 선별했다.

목자의 조건

1. 기본 성경공부를 마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설교가 가능한 지체
2. 기도모임에 잘 참여하고 기도훈련이 되었고 방언을 하거나 사모하는 지체
3. 금식 훈련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충만을 경험하고 노력하는 지체
4. 성령의 은사가 있고 은사를 활용해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지체
5. 믿음과 감사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며 충성된 지체
6. 예배와 교회에 헌신된 마음으로 삶의 중심이 말씀과 예배, 교회인 지체

목자 훈련과 주안점

목자는 소그룹을 이끌기 때문에 목자를 양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목자를 훈련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도와 금식을 하게 해야한다. 목자는 리더의 영성이 필요하므로 기도와 금식으로 훈련 하며 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함께 기도하고 매주 하루 금식을 실시했다. 둘째,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성경 읽기를 훈련해야 한다. 목장 내 목자가 주도 해 매일 5장의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으로 모든 관계를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훈련을 했다. 셋째, 주님의 지상명령에 헌신하게 해야한다. 주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하기 위해 주중에 목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강의를 하며 믿음의 성장을 격려하고 주님 나라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도전하였다. 넷째, 성령의 은사들을 개발 하고 훈련해야 한다. 무슬림 지역에서는 말로 전도 하기 보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주중의 기도모임을 통해 성령님과 동행하며 훈련하도록 했으며 목자들을 대상으로 기도, 상담, 말씀해석 등의 훈련도 실시했다. 다섯째, 지속적인 성경연구를 하도록 강의나 설교의 기회를 줘야 한다. 작은 주제에 대한 강의를 하게 하거나 수요예배 설

교를 목자들이 감당하며 개인의 영적 성장을 도모했다. 마지막으로 목자들을 잘 먹여야 한다. 목자들과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과 같은 관계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격려하며 그들을 먼저 세우는 것을 우선시해야 소그룹 운영도 잘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소그룹의 목표

소그룹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들 수 있겠다. 말과 지식으로만이 아닌 목자와 그룹원이 말씀과 같이 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그룹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준비시키고, 닥쳐오는 상황에서 영적으로 무장되어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과 사탄을 이기게 하는 것이다. 또한 소그룹 훈련은 목자가 양들을 돌보아 성숙을 이루게 하며 제자화 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성숙된 양은 다시 목자가 되어 양을 돌보며 계속해서 재생산을 이루어가야 한다.

소그룹 운영방법

소그룹의 운영방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다르나 3-6명이 적당하다. 6명 이상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목자가 될 후보를 찾아 그룹을 나누는 것이 좋다. 소그룹 훈련에서는 4가지 활동을 목자의 인도로 진행하게 된다. 먼저는 삶을 나누며 친밀해지고, 한 주간 읽은 성경을 주제로 나누을 한 후 전도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연습하며 사용하도록 한다. 모임에 불참하려고 할 때에는 좀 더 친밀해지도록 기도하고 만남을 권유한다. 리더들은 나눔 질문을 담은 리스트를 토대로 1주일에 최소 1번 이상 만남을 갖고, 함께 찍은 사진을 온라인 상에서 목자들 간에 공유하면서 모임을 격려하고 있다. 깊은 교제를 하다보면 어려운 질문을 받게 되는데 목자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큰 기도제목에 대해서는 전체 리더를 통해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한다.

코로나 전 성도들이 함께 모였던 기도모임



목자로 헌신하는 지체들의 유익

소그룹을 운영하면 목자들은 누구보다 더 큰 영적인 성숙을 경험한다. 그룹원들의 상태를 알고 중보 기도하고 성경공부와 나눔 시간을 위해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목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또한 목자들은 그룹원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멘토링이나 성경공부를 하며 그룹원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룹원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양으로 인식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사랑의 마음도 품게 된다.

Opening the doors for church members to minister and sharing the gifts of leaders was of great benefit to the church as a whole.

교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은 목자들이 가진 은사를 능력 있게 사용함으로 교회 전체에도 큰 유익이 되었다.

소그룹을 통한 교회의 유익

소그룹 훈련은 교회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예배나 강의에 성실히 참석하지 않는 지체들이 목장에 소속되었을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개인적이고 긴밀한 교제를 가지며 목자에게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회 내 여러 언어권(T국어, 프랑스어, 페르시아어, 영어)에서 온 지체들이 자신의 언어권의 목자들을 만나 성경공부를 하며 깊이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되자 T국의 타도시나 타국에 사는 지체들까지 목장을 통해 관리되는 등 사역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었다. 교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은 필자 부부 두 사람의 사역과 부담감이 줄게 된 것뿐 아니라 목자들 개인이 가진 은사들을 능력 있게 사용함으로 교회 전체에도 큰 유익이 되었다.





Q&A/Summary of discussions

질의응답 및 토론 주요내용

1. 성숙한 성품과 섬김으로 선교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제자양육의 핵심이다

• 몽골 이철희 선교사

‘아는’ 제자가 아닌 ‘할 줄 아는’ 제자로 키워 내기 위해서는 선교사가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해야 한다. 함께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와닿은 부분과 적용점을 나누는 것이나,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도 훈련의 경우에도 선교사가 함께 데리고 다녔다. 성품훈련은 현지인의 역량이 부족할 지라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소그룹 리더로 세우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 성품이 훈련된다.

• 인도네시아 이석희 선교사

프로그램이나 대규모 회중예배로는 제자훈련이 불가능하다. 소규모로 진행하며 한 영혼을 위해 집중적으로 선교사의 인성과 영성을 쏟아내고 전달해야 한다. 프로그램에 너무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2. 대면으로 신뢰관계 쌓은 후 비대면 양육으로의 전환이 효과적이다

10명 이하의 소수의 모임만이 허용되는 비대면의 상황은 소그룹 및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사역은 감정 전달이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대면사역을 대체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낸다. 여기에 차선택으로 대면을 통해 관계나 친밀성이 형성된 경우에는 비대면 온라인 사역에도 대면 사역과 같은 사역의 효과를 낼 수 있다.

• 인도 요한 선교사

비대면은 대면만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전달하기에 쉽지 않지만 비대면으로도 일대일을 훈련하는 것은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제자를 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지인들에게 우리의 생활을 보여줄 수 없다면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시기에 적절히 대면으로 제자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한편, 성품훈련의 경우 세계관이 바뀌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나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소그룹 제자훈련 / 가정중심사역 2차 tim 화상전략포럼 토론주제 1. 코로나시대에 소그룹 제자훈련이 왜 특별히 중요한가? 2. 소그룹 제자훈련은 대면 오프라인이어야 하는가, 온라인도 가능한가(예를들어 화상 일대일)? 3. 코로나하에서 제자훈련의 최종목표와 방법론은 무엇인가? 목표와 방법론은 공통되어야하는가 아니면 사역지에 따라 다를수 있는가? 4. 예수님의 12제자 훈련방법이 현 코로나시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5. 가정중심사역 / 가정교회가 코로나시대에 새롭게 조명되는 이유는? 가정단위 전도, 양육, 예배(가정교회), 재전도(재생산/확산) 및 가정회복 위한 새로운 모델이나 콘텐츠 연구 필요하지 않을까? 6. 온누리교회 3대 핵심 DNA인 큐티 / 일대일 / 순예배가 오늘 주제위에 새롭게 재정비되고 활용될수 없을지? 포럼시 질문은 채팅창으로!! 	
• 인도네시아 이철희 선교사 비대면 사역의 경우 기술적인 면이 해결되고, 소규모로 진행하며, 좋은 리더십을 만나게 된다면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우연히 한국의 목회자들과 큐티 셰어링을 했는데 충분히 도전받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처럼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3.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물을 넓게 쳐 다수의 양육을 통한 리더십을 배출해야 한다 • 몽골 이철희 선교사 선교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제자양육이다. 제자양육은 험난한 과정이나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꾸준히 하다보면 현장에 맞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제자를 잘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오랜 시간 한 사람	We have to raise up the multiple leaders by casting a net rather than focusing on one person. 한 영혼에 집중하기 보다 그물을 넓게 쳐서 다수의 양육을 통한 리더십을 배출해야 한다.

에게 시간과 노력을 쏟았는데 그 사람이 떠나는 경우 큰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성을 넓게 잡고 그물을 넓게 쳐서 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들여 많은 사람에게 제자 양육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4. 가정중심사역의 확장 및 사역의 새로운 메뉴얼과 콘텐츠가 필요하다 (가정단위 전도/양육, 가정예배, 재전도/재생산 등)

• 레바논 박겸손 선교사

요르단에서 만난 한 무슬림 친구는 복음을 듣고 영접기도까지 했지만 믿음을 지켜낼 주변 상황이나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신앙의 중간 지대에 있는 경우였다. 그러나 이슬람 국가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거나 성령을 체험하며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한 쿠르드족 같은 경우에는 영접기도 만으로도 정체성에 변화가 오는 현혼들도 있었다. 무슬림 간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느꼈고 그에 따라 전도방법이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다고 여겨진다.

• 코트디부아르 김빌립 선교사

제자양육과 교회 내 소그룹훈련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제자양육, 일대일 훈련을 할 당시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여졌지만 훈련이 중단되는 경우 다시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예수님처럼 지속적으로 함께 지낼 순 없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과 도구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제자양육훈련에 어려움이 있다. BEE나 일대일의 경우 현지인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교재이기도 하다. 종합적으로 큐

티와 소그룹, 일대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사역모델이 필요하다.

5. 온누리 DNA인 큐티, 일대일, 순예배(소모임)를 재평가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큐티는 가장 핵심적인 제자훈련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일대일 양육은 제자를 낳는 예수님의 방식이다. 순예배는 소규모의 예배 공동체로, 이 세가지를 통해 현지 리더십들이 길러지고 결국 이양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이다.

• 도미니카공화국 이교자 선교사

온누리교회의 DNA 3가지인 큐티, 일대일, 순예배(소모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선교는 결국 선교사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큐티의 경우 큐티사역과 자신의 삶을 접목시키다보면 사역 뿐 아니라 성품 훈련의 도구로도 부족함이 없었다. 다만 선교사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현지인들에게 보여주는 양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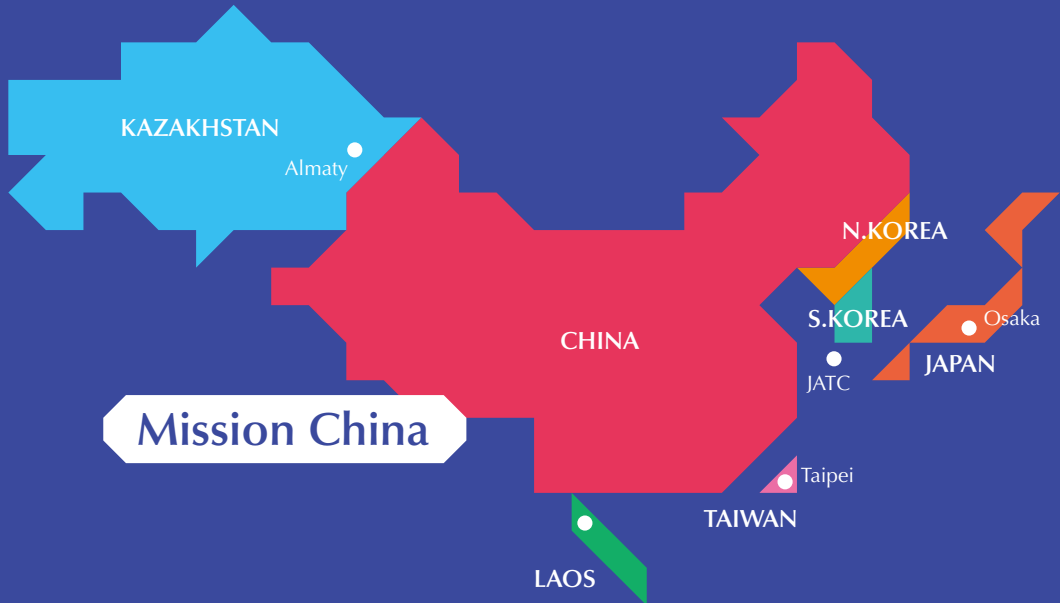
• 콜롬비아 정진모 선교사

온누리교회 DNA 중 하나인 큐티 사역을 강조하고 싶다. 큐티는 삶의 상태와 전도, 적용의 문제, 영적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틀이다. 콜롬비아에서는 큐티를 통해 큰 열매를 거뒀다.

발제 후 이어진 질의응답 및 토론에서 TIM 선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정리하였다.

Mission China implemented outside China

중국 대륙 밖에서 진행 중인 '선교중국'



GLOBAL ISSUE

선교중국 사역 진행 현황

선교중국으로의 부흥과 전 세계 선교의 완성을 꿈꾸며 / 허드슨 선교사



라오스 L지역 ST - 하늬족(아카족)사역



Updates on Mission China 선교중국 사역 진행 현황

중국 정부는 공산당 체제 유지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종교사무조례를 개정 시행하여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박해를 강화시켰다. 중국 내 종교활동에 제한으로 중국 선교환경이 급변하면서 최근 2년간 3,000명 이상의 한국 선교사가 중국에서 철수했고, TIM 선교사 중에서는 80%가 철수하여 몇 유닛만이 잔류하게 되었다.

이에 세계 선교는 중국교회를 세계 선교의 동역자로 세우는 ‘선교중국 2030(MC2030 : Mission China 2030)’의 비전을 선포하고 ‘중국선교’에서 ‘선교중국’으로의 전환과 2030년까지 중국으로의 20,000명의 선교사 파송을 결의하였다. TIM은 선교중국팀을 세우고 중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주도적으로 감당해 마지막 남은 과업을 완수하도록 하는 촉매 역할로서, 중국 대륙 밖 5개국(제주(JATC), 일본, 대만, 라오스, 알마티)에서 ST를 구성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nticipating the completion of mission through Mission China

선교중국으로의 부흥과
전 세계 선교의 완성을 꿈꾸며

허드슨 선교사



JATC - 훈련사역

하나님께서서는 우주 만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선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를 계획하셨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으며 성령님을 통해 그 완성을 주도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이후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 세계 도처에서는 기독교 박해가 끊이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청나라 말기와 모택동 공산당의 집권기에 이어 시진핑 집권기(2013년~현재) 중반에 접어들며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 여파로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이 중국 당국의 압박으로 중국에서 추방당하기 시작했다. 2018년 새해 TIM선교사 한 가정의 추방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계속 선교사들이 추방되었다. TIM본부에서는 전담팀을

For missionaries who are eager to leave for the field, to wait is not easy. But later I realized that God had something to be done during this period.

선교지로 다시 나가고 싶은 선교사들로서는 기다림이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

구성했고, 아직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모두 추방당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전략적 철수’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2019년 8월까지 TIM중국 장기 선교사 중 80%가 철수했고, 몇 유닛만이 중국에 남게 되었다.

2019년에 본부에서는 사역지 철수 후 6개월 내 재배치 원칙을 세웠다. 선교사들은 새로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리서치하는 중에, 최근 온누리교회의 중점사역으로 떠오르게 된 국내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에 사역참여를 제안받게 되었다. 선교사들은 8개월의 시간동안 한 달에 두 차례씩 모여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중국에서 철수한 선교사들이 한 곳에 모여 생활하도록 양지 Acts29비전빌리지 내 숙소를 마련해주었다. 하루라도 빨리 선교지로 다시 나가고 싶은 선교사들로서는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 만일 선교사들이 원하는 대로 빠르게 재배치가 이뤄졌더라면 선교사들은 각기 뿔뿔이 흩어져 나갔을 것이다.

반 년 이상, 길게는 1년 이상 선교사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선교중국’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다. 그 해 8월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위구르족), 라오스(하닉족), 대만, 일본, 제주(JATC) 등 5개 지역에 ‘선교중국’이라는 동일한 비전을 품고 중국 선교사들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TMCC(TIM Mission China Council: 팀 선교중국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알마티에 2유닛, 라오스에 3유닛, 대만에 4유닛, 일본에 2유닛, 제주에 3유닛이 나가게 되었고, 현재는 추가로 유닛이 더 보강되어 활발히 사역하고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 후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기 시작해 중국내지 선교회(CIM: China Inland Mission)의 267명 선교사 전원의 철수 명령으로 CIM은 해체의 기로에 놓이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 때를 기점으로 하나

님의 더 큰 비전을 보게 되었고 선교단체의 이름을 OMF(Overseas Mission Fellowship)로 바꾸고 중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로 영역을 넓혀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8장에서의 선교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흠여지게 함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 TIM중국 선교사들은 5개 지역으로 흠어져 중국 내에서 완성하지 못한 위구르족 선교, 하늬족 선교를 중국 밖에서 열렬히 감당하고 있다. TIM 선교중국 Landing City인 대만에서는 중화기독교 두란노해외선교회 설립을 추진하고 중화복음신학교와 협력해서 선교사를 양성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중국어 예배가 시작단계에 있으며 향후 중국인교회를 개척하고 이주민 선교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재한 중국인 사역자 역량 강화 코칭 및 IMB 협력 CCM(Cross-Cultural Missions) 중국인 훈련과 Mission China 연합 사역으로 활발하게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 가운데 보낸 새로운 선교지에서의 1년여 시간 동안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크신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들로 다듬어질 수 있었다. 중국 선교사들은 몸은 중국에 없지만 마음은 늘 중국을 잊지 않고 중보하고 있다. 화교를 포함한 중국인들이 중국과 각국에서 일어나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고 땅끝 선교가 완성되어 마침내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꿈꾼다.

라오스 L지역 ST - 하늬족 아이들





It was like late rain in a dry land

마른 땅에 내린 늦은 비와 같았던 시간

손종열 지원자



작년 8월부터 기다려온 TP선교사 훈련 면접일자를 통보받은 건 12월 끝자락이었습니다. 면접을 앞두고 담당자분께서는 화상 면접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했지만 놀랍게도 지원자들이 나보다 훨씬 어린 20대에, 나를 제외한 조원들은 이미 선교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당황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후 합격소식을 듣고 나서는 SOT로부터 강사훈련 요청을 받은 터라 약간의 망설임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TP선교사로 마음을 결정하고 비전빌리지에 입소했습니다. 배정받은 1인실에 들어갔을 때 데워진 따뜻한 방과 웰컴바구니를 보며 긴장한 마음은 누그러졌습니다. 아름다운 하용조 목사님 기념관에서 드렸던 개강 예배에서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던 “나를 교육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며 TP훈련에서 만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TP훈련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QT(Quiet Tim) Basic’ 강의를 들은 후 하나님과의 Quiet Time을 보내는 것과 더불어 Question Time, Quit Time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실습 본문을 통해 주신 십일조, 언약, 거룩하라는 말씀은 선교지에서도 항상 마음에 둘 말씀으로 새길 것입니다. ‘라이프맵핑(Life Mapping)’ 시간을 통해서는 스스로는 알지못한 채 지나온 과거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깨달았습니다. 힘들고 무거웠던 짐들을 이제 주님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느끼는 지금이 무척 행복하다는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SYS(Sharpening Your Interpersonal Skills: 대인관계기술)’ 수업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 안에 있던 주관과 약점을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고 관계에서 대응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개발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적전쟁’ 강의를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의 존재가 있다는 것과 날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상 체계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자기 이해’의 시간을 보낸 후 단기선교사로 있을 시간들을 제 인생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됐고, ‘미디어 선교’ 강의를 듣고 나서는 이제 저도 컴맹을 탈출해 유튜브가 되어 미디어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연구’ 시간은 선교지를 취하러 가는 사령관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것이란 기대감이 생겼고, ‘세계선교역사’를 듣고 나서는 코로나 펜데믹을 지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하나님의 도전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선교역사’ 강의는 과거를 돌아보며 느끼는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한 분 한 분의 선교역사를 배우며 제가 주님을 알기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의 순

교와 헌신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경외함과 감사한 마음으로 양화진의 선교사님들 묘역을 방문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선교와 성경’에 대해 배우면서 하나님은 선교를 위한 선교사가 되어 쓰신 책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주님의 방법인 상황화(관점에 따른 주님과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선교사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문화 선교’를 통해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문화, 세계관의 차이를 배우면서 타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의 중요성 깨달으며 선교지에서 저는 가르치는 선교사가 아닌 친구가 되어주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시안홀에서의 예배였습니다. 24시간 내내 예배자를 위해 열려 있는 예배당은 요즘과 같이 폐쇄적이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 큰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드리러 갈 때마다 만나게 되는 동기들의 모습도 기억에 남고, 중보가 필요한 동기들을 위해 함께 중보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도 감사의 제목으로 남습니다. 동기들은 3개국(러시아, 중국,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훈련 내내 함께 어울리며 국적과 배경, 문화와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실감하며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아끼게 되었습니다. 타 문화권인 선교지에서의 경험을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실습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와 사랑으로 친구가 되어준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훈련을 섬겨주신 원장님, 팀장님을 비롯한 간사님들과 강사님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섬기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결같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기시는 선배 선교사님들을 보며 저도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TP 37기 훈련은 마른 땅 위에 내린 하나님의 늦은 비와도 같았습니다. 풍족한 은혜의 선물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I can say that I am very happy now
when I have left the burdens difficult
and heavy to the Lord and rest. He will
do the same in the coming days.**

힘들고 무거웠던 짐들을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느끼는 지금이 무척 행복하다는 고백을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TP training was like scratching a lottery ticket already won and hidden in a pocket

TP훈련은 주머니 속의 당첨된 복권을 긁는 것!

김재연 자원자



어느 날 저는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몸과 마음이 지쳐있었고 코로나로 TP훈련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공지를 받고서 TP훈련을 참석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받으면서 이내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첫 주차에 라이프맵핑(Life Mapping)을 하면서 한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던 시기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미워했지만 나는 그럼에도 그때에도 너를 사랑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널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늘 남의 이야기 같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에 집중하게 되었고 서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체질이 변하지 않아서인지 나태한 옛 습관이 2주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시안홀(기도 처소)을 찾던 발걸음도 줄고 기도도 짧아졌습니다. 며칠 후 새벽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저를 겨냥한 것처럼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거룩한 습관 3가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못하겠다고 스스로 한계 짓고 타협했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훈련 강의를 통해서 선교지에서 벌어질 어려움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도 생각났습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의 소원함이 생겼음에도 내가 져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보며 나태함을 경계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훈련 기간동안 함께했던 형제 자매 분들께는 큰 도움을 받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나눔이 많이 어려웠지만 그분들과 교제하고 나누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깨닫기도 하면서, 공동체와 나눔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However, God said, “You hated me, but I loved you and I still love you.”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미워했지만 나는 그럼에도 그때에도 너를 사랑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널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중간에 전도훈련을 하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제 인생의 간증을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혼내거나 눈 치주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혼자 마음에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제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미숙한 저를 주변에서 많이 도와 주셨던 사람들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이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타협하지 않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TP훈련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TP훈련은 주머니 속의 당첨된 복권 같다’는 겁니다. 당첨된 복권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잊어버리면 그것은 복권이 아니라 단순한 종이 찌가리일 뿐입니다. 당첨된 복권을 굽어보고 누렸던 4주 간의 훈련을 마치고 나니 이 시간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삶에서 적용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Gospel to all peoples! Churches to all tribes!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ACTS 비전빌리지 3층

Tel 031-336-1042

E-mail tim@tim.or.kr

두란노해외선교회 미주지부(TIM America)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Tel +1-201-461-4010

E-mail tima061204@gmail.com

두란노해외선교회 일본지부(TIM-JAPAN)

〒537-0024 Osaka, Higashinari-ku,

Higashiobase, 3-chōme—9—11

E- Builder Building 3F

Tel +81-6-7220-9927